

광주시 전국 최대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박람회' 개막

오늘부터 13일까지 DJ센터...씨젠의료재단 등 130개사 300개 부스 세미나·수출상담회도...광주 의료산업 공동관, 의료·치과 등 6개 주제

광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의료헬스케어 및 뷰티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2022광주메디 헬스산업전'을 11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헬스케어 및 뷰티산업의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선보여 구매를 지원하고, 관람객이 최신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산업전은 광주시 주최,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재)광주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이며,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 조선대, 남부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국민체육100, 씨젠의료재단, 아시안치매연구재단 등이 후원한다.

전시품목은 의료기기, 의료소재, 뷰티, 헬스케어, 의료관광 등으로 130개사 300부스 규모이며 관련 제품 및 기술 전시, 의료세미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사 구매상담회, 헬스케어·뷰티체험 이벤트 등이 준비돼 있다.

행사장은 참여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의료기기·진단장비존', '헬스케어&웰니스존', '의료관광&뷰티케어존', '광주의료산업공동관'으로 구성됐다.

광주 의료산업 공동관은 의료, 치과, 안과, 정형외과, 치매, 화장품 등 6개 주제로 꾸며졌으며, 지역 60여 개 업체와 함께 메디시티 광주시의 의료산업 발전현황 및 성과, 선진화된 의료기술 및 뷰티산업을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씨젠의료재단과 에이젠, 코비코, 리메드 등 국내 의료산업 분야의 유망기업들이 신규 참여해 진단키트, 병원특수차, 전자약 등 경쟁력 있는 전시품목도 선보인다.

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KOTRA와 연계해 '해외바이어 초청 1대1 수출상담회'와 '국내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행사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행사기간 중 매일 무료 퍼스널 컬러 진단, 체력완 선발대회, 배스밤 만들기, 바다프로필 촬영, 치유향기 체험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건강검진권과 피부관리권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염방열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 및 전세계적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전시회를 통해 판로개척과 글로벌마케팅 기회를 얻고 지역 의료·뷰티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 의료헬스케어와 뷰티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판매로 연계되는 비즈니스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대, 수능생 응원 '힐링 콘서트'

10일 오후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유니브로(Uni-Bro) 힐링 콘서트'에서 교내 밴드가 공연하는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주간 정철)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연은 '2023 대학수학

능력시험일을 일주일 앞두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황룡강 문화·관광 거점 만들기 '시동'

Y 프로젝트 용역 착수 보고회...사업비·환경 훼손 등 숙제 산적

광주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황룡강을 중심으로 생태·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Y-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다만 가늠이나 부채가 많은 현실에서 대규모 사업비 마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수변 여가시설 내 시민 안전성 문제, 수질개선 등 해결과제도 수두룩해 '트랩사임' 처럼 지역 내 논란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Y-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Y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것이다.

Y-프로젝트는 두 강처럼 과거와 미래, 기술과 예술, 광주와 전남의 만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일상의 관광화 등 변화 흐름에 맞춰 시민들의 강·하천 이용 형태를 복합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내년 8월 27일까지 영산강과 황룡강 일원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원천자료 구축, 국내외 사례·연구 분석,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과업을 수행한다. 저평가된 영산강, 신창동 마한 유적지 등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학술 분야 연구도 포함했다.

보고회에서는 Y-벨트 5대 가치로 ▲광주 발전의 중심축 ▲친환경 생태자원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 자원 ▲시민 여가와 쉼의 공간 ▲광주·전남 상생과 통합의 축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인문, 도시계획, 관광, 수질, 환경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견 수렴단을 구성해 용역 완료까지 지역사회 목소리를 듣고, 용역 총괄 기획기도 위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순조

내년 1월 시행...조례 제정 등 분주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앞두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추진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례는 ▲담례품 및 담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례 공포 즉시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담례품목을 결정하고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담례품 선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추진을 위

한 매력있는 담례품 선정을 위해 담례품목 발굴조사,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준비비율을 개회하는 등 담례품 선정에 따른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출향도민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전 국민 대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대형행사에 참여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펴고 있다.

청정 전남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수·축·임산물 등을 비롯해 전남의 매력이 담긴 담례품 선정이 완료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담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17일까지 친환경디자인전

친환경 디자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디자인전이 열린다.

'제7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전'이 오는 11월부터 17일까지 담양군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린다.

이번 친환경디자인전은 '내 삶을 바꾸는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디자인의 역할과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참여했으며, 전남도 공공디자인 정책과 친환경디자인상 수상자, 자원의 순환과정, 업사이클 및 친환경소재(대나무)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병뚜껑을 활용한 소품, 친환경소재로 만든 화분, 나만의 에코백 등 친환경디자인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특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자원들이 디자인과 융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자원 순환과정을 통해 친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특별관에서는 담양군의 디자인 정책 및 지역작가들의 작품, 담양남초교 학생들의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활동 성과물도 전시된다. 11일에는 제7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시상식과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도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함께하는 달빛동맹, 열한번째 이야기

대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22.11.19 SAT - 11.20 SUN

Part1. 달빛소통 14:00 ~ 17:00 탐방 프로그램 (ACC, DJ센터)
11월 19일(토) Part2. 달빛나눔 16:00 ~ 18:00 개막식 / 멘토톡 / 달빛콘서트 (무등파크광주)

11월 20일(일) Part3. 달빛기쁨 10:00 ~ 15:00 투어 프로그램 (자산유원지, 양림동)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15일까지)
대상: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 많은 대학생 및 일반시민 (20~39세) 모집인원: 선착순 80명
참가비: 없음(기부품증정) 참가방법: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